

도내대학 · 혁신도시, 맞춤형 인력양성 주력

전주시,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 공동 대응 나서기로... 법제화 필요성 공감대 확산 주력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을 주문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위해 전주시와 도내 대학들이 맞춤형 인력양성에 나선다.

13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북대와 전주대, 군산대, 원광대, 우석대, 예수대, 한일장신대, 호원대, 서남대 등 도내 4년제 대학 부총장 및 기획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간담회를 열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시와 참여대학들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맞춤형 지역인재를 함께 양성하고, 전문분야의 능력을 갖춘 지역인재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시와 지역 대학들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 TF팀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TF팀에서는 정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추진동향에 따라 각 기관별 역할과 대응방안 등을 모색하고,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신설·변경 등의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이를 통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 법제화가 실현될 경우 가장 우려하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을 주문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위해 전주시와 도내 대학들이 맞춤형 인력양성에 나선다.

는 맞춤형 인재를 지역대학에서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돼 지역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시는 지역 청년실업과 지역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정정권 원광대 부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학교에서 다양한 인력들을 양성하고는 있지만 공공기관 취업을 위한 특화된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학교와 공공기관과 연계

해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전주시가 매개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룡 군산대 기획처장도 "자율경쟁을 해야 하겠지만 대학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어느 대학이나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성석 전북대 부총장은 "공공기관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다"면서 "현재 전주시,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과 동시에 다른 기관에도 타 지역 인재들을 일정 비율을 뒤 균형 있게 채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북혁신도시는 전주시와 전북도의 성장 축"이라면서 "공공기관들이 수많은 어려움을 뚫고 지역으로 내려온 것은 지역을 살리고, 지역 인재를 키워내 지역성장 동력을 일깨우는 순수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통해 공공기관들은 지역의 대학과 인재를 살리고, 지역사회는 이전기관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서 지역특화 산업역신을 러스터를 조성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함께 마음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

“우리 마을의 미래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전주 원도심 공동체학교 자람대회 개최

전주시 원도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을 통해 바뀌어갈 마을의 미래모습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주시와 전주시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13일 전주중부교회 비전센터에서 '전주 원도심 공동체학교 자람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5월 22일부터 진행된 '도시재생대학(원도심 공동체학교)'에 참여한 주민·상인·시민들이 두 달 간의 학습 과정을 마치며 살맛나는 전주 원도심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풀어놓는 자리로 마련됐다. 원도심 공동체학교는 국비 외역원 등 총사업비 182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0년까지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일원에서 다양한 사회적·물리적 재

성을 추진하는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날 자람대회에는 총 10팀이 참여해 자신이 살고 있는 전주 원도심의 미래상에 대해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도시여행과 마을해설, 원도심 아카이빙, SNS를 활용한 소통과 홍보, 마을책방 등 도시재생과 관련한 다채로운 제안들이 쏟아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교육, 세미나, 축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원도심 재생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공동체와 공동체경제를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 등 총사업비 182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0년까지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일원에서 다양한 사회적·물리적 재

/인재용 기자

덕진구, 시원한 도로 콜 서비스로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

전주시 덕진구는 폭염으로 스트레스와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오는 9월까지 무더위를 씻어줄 '도로 콜(Cool)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도로 콜 서비스는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 발생시 유동인구 밀집지역과 시민통행이 많은 주요 보행도로에 열음을 배치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시원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열음은 전주역 및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전북대 구정문 등 12개소에 오전 10

시 2개씩 배치하고 살수작업은 낮 최고기온이 시작되는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에 살수차를 임차하여 도로에 물을 뿌려 지열을 식혀 주게 된다. 박선이 덕진구청장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여름철 평균기온의 상승과 함께 폭염일수가 많아지고 폭염의 온도가 증가 추세에 있어 스트레스와 불편을 겪고있는 시민들이 보다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콜(Cool)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경찰서 내부 불화감사 조사

경찰서 수사팀 내부에 불화가 일어나 인사 이동 등의 조치와 감찰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13일 A경감 등 3명에 대해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경감과 B경위는 같은 수사팀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불화가 발생했다. 감찰조사에서 A경감은 "B경위가 평소 자신 보다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자신을 상관으로 대우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B경위는 "A경감이 부하직원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지시했다"고 맞서고 있다.

해당 경찰서는 이러한 불화가 감지되자 화해를 중재했지만 실패해 인사 이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기자

‘잠 못드는 열대야’ 천번 쉼터로 오세요

덕진구, 쾌적한 여가공간 제공 나서... 애완동물 배변함 시범 설치 등 추진

전주시 덕진구는 연일 폭염과 열대야 이어지는 가운데 더위를 피해 하천을 찾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팔소매를 걷어 붙였다.

덕진구는 이를 위해 애완동물 위생봉투(배변함)를 설치, 사정고 비둘기 배설 방지 줄 설치, 하천산책로 시설물 점검·보수, 산책로 제방도로 제초작업 및 유해식물 제거 등을 추진했다.

먼저, 덕진구는 올바른 산책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방치된 애완동물의 배설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주천 생태학습장 등 4곳에 애완동물 위생봉투

(배변함)를 시범 설치했다. 직사각형 모양의 위생봉투함 안에는 배변 처리용으로 한 장씩 꺼내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 위생봉투가 비치돼 반려견의 배변 문제를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애완견 배변 봉투함의 이용실적과 시민 인터뷰 등 다각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한 후, 애완동물 위생봉투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완산구 사신동 서일공원과 덕진동 전주지방방법원·감찰청을 잇는 사령교에 악취와 소음, 위생,

시설을 부식 피해를 유발시키는 비둘기 등 조류를 막는 비둘기 배설 방지 줄도 설치했다.

덕진구는 방지 줄 설치 이후 비둘기의 서식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관찰됨에 따라 관내 도심하천 교량에 추가 설치하여 쾌적한 하천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즐겁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천 산책로 편의 시설물을 점검·보수하고, 제방도로 및 산책로 제초작업을 추진해 쾌적하고 안전한 산책로 환경을 만드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전주시설공단, 주차시설 근무자 소통의날 추진

전주시설공단은 주차시설 고역 직접 근무자를 대상으로 근무자 소통의 날을 추진했다.

지난 일주일간 진행해온 현장 간담은 공단 시설종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근무하는 현장 직원들과 대화를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내부 만족을 통한 고역 서비스 개선의 목표로 마련됐다. 공단 임원과 주차시설 현장 근무자들이 참석한 소통의 날

행사에서는 갑질민원에 대한 어려움 및 근무 여건개선 등 근무환경에 대한 애로사항은 물론, 현장에서 체득한 주차업무 시스템에 대한 개선건의 개선 등 발전적 의견이 주를 이뤘다.

전주시설공단 전성환 이사장은 "현장의 의견들이 즉각 개선·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고객만족 공공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부안 성추행 체육교사 검찰 송치

전북 부안의 한 여고에서 성추행혐의를 받고 있는 체육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3일 해당 체육교사

A(51)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이날 오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성추행 피해 학생들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A씨의 혐의 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이상민 기자

www.jjnh.co.kr

조합원님!! 자식 같은 농산물 모두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으로 전주시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로컬푸드직매장 10곳 개소로 영세농업인 소득향상



복숭아



미나리



장미



호박



배



조합장 임인규

상임이사 (신용)오태석
상임이사 (경제)나병훈

이사 김대진, 김양순, 김중표, 김태영, 김형수, 송재구, 신동선, 오남석, 유석용, 이상현, 이상경, 주동현

사외이사 김병운, 이희열

감사 정무성, 조미희

전주농협농민회
전주농협 Good 농산물

전주농협농민회